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보고

성 찬 식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부활절 / 성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김순중(T국)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김원재목사

샤마임찬양대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신앙고백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찬 228)
특송(김은희자매) - 살아계신 주
결단의 기도

즐겁도다 이 날(찬 167)

내 모습 이대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4:21-28

셋째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성자의 귀한 몸(찬 216)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부활절이며 성찬주일입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부활절에 특별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의 50%는 이웃사랑과 선교에 사용됩니다.
4. 부활절을 맞아, 티벳목장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인종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맨하탄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던 어떤 아시안 여성이, 대명천지에 한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여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 장면이 CCTV에 잡혀 보도되었고, 인근 건물 안에서 폭행 과정을 지켜보던 남성 3명이 쓰러진 여성을 돕기는커녕 출입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폭행하는 인간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물려왔습니다.

그간 미국 사회 속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던 차별과 혐오의 부끄러운 모습이 코로나를 핑계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폭행 가해자는 당연히 차별과 혐오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지켜보고만 있던 그들도 사실은 제 2의 폭행 가해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의 민낯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늘 차별과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뀌어 왔을 뿐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있던 차별과 혐오의 마음은 네이티브 어메리칸의 학살로, 흑인 노예 사육으로, 여성 인권의 무시로, 흑인 인권의 차별로, 무차별적 매카시즘 사냥으로 연속되다가 현재 아시안 혐오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이 세상의 폭력성은 희생양을 만들어 자기 정당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미국의 폭력성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울분을 아시안이라는 희생양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얼마전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로 흑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적 폭력에 항거하던 흑인들이 아시안 차별과 혐오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차별받은 흑인들이 아시안을 혐오하듯이 현재 피해자인 아시안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양을 향하여 우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혐오 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대철학자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대학의 기 소르망 교수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규탄하던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미셸 푸코가 아동성애자로, 아동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던 또 다른 광기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